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2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제1회 캘린더 전시회

1955년 2월16일자(제9호) 인쇄문화시보는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 라는 머릿글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 열린 캘린더 전시회를 보도했다. 미국 공보원 전시장에서 6일간 개최된 전시회에 대해 시보는 인쇄문화의 발전과 질적 향상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호평했다. 국내 20여개 업체에서 36종의 인쇄물이 출품된 제1회 캘린더 전시회에는 총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전시회에는 7명의 심사 위원단에 의한 우수 캘린더 부문 시상식도 개최됐다. 상공부 장관상에는 대한사진인쇄사와 동아정판인쇄(주), 문교부 장관상에는 합동도서(주), 공보처 장관상에는 남양인쇄사가 각각 수상했다. 시보는 또 보도 말미에서 인쇄는 문화를 상징하는 것인 만큼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많은 인쇄업체들이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동조합 추진 운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쇄업계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인쇄문화시보는 1962년 2월 20일자(제155호) 보도를 통해 2월9일자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인쇄공업협동조합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보는 공포된 9일을 기점으로 대한인쇄공업협회 본부와 서울시 지부가 연석 이사회를 개최해 협동조합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음을 다뤘다.

이날 개최된 연석 이사회를 통해 3월9일 경북인쇄공업협동조합이 창립됐다. 또 4월을 기점으로 충북, 전북, 충남, 경기, 경남 등 전국적인 조합 운영 형태가 그 모습을 갖췄다. 시보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던 군사 혁명 정부가 해방 이후 피해 일로에 있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완화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시아 인쇄인 한 자리에

아시아의 인쇄인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1965년 2월25일자(제220호) 인쇄문화시보는 20일 개최된 제3회 아시아인쇄 회의에 대해 '각국의 기술력을 긴밀한 제휴를 통해 이뤄나가지' 라는 문구를 1면 머리 기사로 내세우며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아시아인쇄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8개국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구종 국정교과서 사장, 김기만 왕자인쇄공업사 사장, 민병웅 동아정판 사장이 참가했다.

시보는 회의의 성격에 대해 '기술 정보 교환을 자주 실시해 아시아 각국이 상호 발전해 나간다는 취

지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1·2회 때의 회의에 비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평했다.

인쇄업 육성책 제시

시설 근대화 및 인쇄업 육성책에 관한 건의서가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제출됐다. 시설 낙후에 따른 고질적인 병폐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1977년 2월15일자(제557호) 인쇄문화시보는 인쇄문화협회가 제출한 건의서 내용 중 "우리나라 인쇄 시설의 30~40%는 수동식 등 20년이 지난 기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을 비교적 의미 있게 해석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보는 근래 인쇄업종의 실정을 예로 들어 최신 기계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종래와 같은 인쇄 물량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시보는 내수 시장의 보호를 위해 중고품의 반입을 불허하고 새로운 인쇄 방식의 개발을 수반한 최신 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인협이 제시한 건의문에는 관수용 인쇄료율 ▶부가가치세 실시 ▶허가요건 구비 ▶불공정 영업 행위 규제 등이 제시됐다.

펄프 링크제 완전 폐지

제지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온 각종 펄프의 링크제가 완전 폐지됐다. 인쇄문화시보 1978년 2월2일자(제579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공부는 벗짚 펄프메이커인 삼정펄프와 대림펄프를 인수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링크제 폐지를 연기해 왔다. 하지만 시보는 상공부의 말을 인용해 삼정펄프가 1977년 말 제지업계 5대 메이커에 인수되고 대림펄프도 인수원칙이 사실상 합의됨으로써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공부의 조치로 링크제의 폐지가 가시화됨에 따라 제지업계는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시보는 그 동안 14.5%가 적용되던 링크 비율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벗짚·UKP(미표백)·BGP(표백쇄목)·BKP(화학표백) 펄프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펄프들이 무제한 경쟁 체제에 진입하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물량 수주가 이뤄지게 될 소지가 높고 덤핑으로 인한 과다 경쟁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전문대 인쇄과 졸업생 첫 배출

신구전문대학과 부산공업전문대학에서 인쇄과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됐다. 1980년 2월16일자(제627호) 인쇄문화시보는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전문대 인력의 사회 진출이라는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시보는 졸업생 배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인쇄계 인력확보에 큰 도움은 못 준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다뤘다.

시보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공고와 전문대간의 인쇄과 정원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 뒤 졸업과 동시에 군 입대를 하는 남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막상 사회로 진출하는 인력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시보는 또 신구전문대학의 인쇄과 졸업생 성비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면서 27명의 졸업생 중 여학생 4명을 제외한 24명의 남학생이 군 입대를 해야 하는 나이라고 밝혔다. 졸업자는 있지만 취업자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시보는 그 당시 고급 인력의 수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한 뒤 체계적인 4년제 대학의 교육을 통한 인력 배출만이 고급 인력을 사회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공업전문대학은 당시 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24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홍일 기자〉